크리에이티브는 자유로운 작업 환경에서 더 빛난다

프리랜서는 더 이상 떠돌이 무직자가 아니다. 요즘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안일한 직장 생활보다 프리랜서가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필자 마르쿠스 알베르스(Markus Albers)는 주장한다. 프리랜서의 성공담은 비단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티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글: 마르쿠스 알베르스(Markus Albers), 번역: 박진아, 담당: 박은영 기자

나의 계획은 완벽했다. 나는 월급도 많고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었다. 자유롭고 싶었다. 사무실에서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과 다른 사람에게 지시받기, 사소한 것 하나까지 흠잡기에 몰두하는 미팅 등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스마트워킹 – 스마트 e시대 자유 정규직이 뜬다 Morgen Komm Ich Später Rein〉(비즈니스맵, 2010)라는 책을 썼으며, 그 책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책을 집필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만큼 성공한 기업'을 여럿 만났다. 하지만 내가 편집장으로 일하며 몸담았던 독일판 〈배너티 페어Venity Fair〉 같은 언론사는 여전히 그 같은 관행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왜냐고? 언제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자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하기'라는 콘셉트를 설정해 실현이 가능한지 시험해보았다. 프리랜스 기자 입장에서 이 콘셉트를 '이지 이코노미(Easy Economy)'라고 이름 붙였다. 우선 여러 업체의 연락처를 모으고 짐필 아이디어를 정리한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예상 원고료를 계산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사를 기획하고 기고했다.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오면 출판 에이전시에서 강연자로 나섰다. 두어 달 지나 또 여행하고 싶어지면 부에노스아이레스, 방콕, 독일의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여행을 떠나 다음에 출판할 책을 썼다. 항상 꿈꿔오던 그런 생활은 너무 즐거웠다. 독립적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유를 만끽했다. 그러던 어느 날! 2008년 국제 금융 위기가 터졌다.

위기는 기회다

계획했던 여행은 당분간 보류했다. '찾을 수만 있다면 다시 풀타임 직장 생활로 돌아가야겠구나. 좀 답답하더라도 책상에 앉아 일하는 정규직을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직장 생활로 다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내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배너티 페어 폐간. 전 직원 해고"라는 메시지를 편집부 동료가 보내온 것이다.

이 시점이 되자 평생 직장을 지키겠다고 매달리기보다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 직장이라 여기던 안정된 일터도 영원할 수는 없다. 해고된 동료들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 무방비 상태였다. 게다가 한 잡지사에서 한꺼번에 해직된 80여 명의 직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면 그 경쟁은 또 얼마나 심각해지겠는가. 그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을 것이라 여겼던 회사들도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메르클린(Märklin), 로젠탈(Rosenthal), 쉬써(Schiesser), 카르슈타트(Karstadt) 그리고 심지어 오펠(Opel) 같은 독일의 전통 브랜드와 회사들까지. 금융 위기가 시작될 무렵 이 기업들이 겪었던 불안감은 곧 열악한 취업난으로 이어졌다. 반면 나는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 과거 정규 고용 시절과 다름없는 수입을 올린다. 때론 내 작업실에서, 때론 리스본의 한 카페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하는 내 업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프리랜서 인생이 항상 순풍에 돛 단 듯 평탄하기만 할 순 없지만 이 정도면 내가 계획했던 이지 이코노미를 성취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미코노미 시대

금융 위기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안정된 직장 생활에 대한 꿈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개척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누구는 이러닝(e-learning) 사업을 시작했고, 누구는 아이폰 앱을 개발해 돈을 벌었다. 가상 사무 비서 업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에이전시를 운영하거나, 기후 좋은 나라로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 반면 직장에 더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땐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최선책도, 유일한 전략도 아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금융 위기 이후 보수 좋은 직장을 자진해 그만뒀다. 위기를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겼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의지하기보다 랩톱 컴퓨터 한 대로 아파트 거실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이제 금융 위기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그 결과 이어지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일터에 대한 우리의 고정 관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위기는 독립을 위한 촉매제다. 위기는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직업을 택한다.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좋아하는 장소와 환경을 일과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줄 안다. 개인은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특기를 살려 전문화시킨다. 하기 싫거나 잘 못하는 일은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면 된다.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줄 알게 된 것이다. 분명 즐겁고 흥미진진하며 보람 있는 인생이다. 하지만 누구나 이런 직업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평생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해야 한다. 타 문화에 관대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성공할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 프리랜서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 환경을 나는 '미코노미(Me-conomy)'라 부르겠다.

〈모노클Monocle〉은 2009년을 '재고의 해(Rethink Year)'로 지정했다. 월드 토픽을 담당하는 편집자 앤드루 턱은 금융 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라며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또 경제 위기는 자기 점검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다. "사진 에이전트로 일하던 사람이 요리사로, 은행가가 농부로 변신한 경우도 보았다. 그들은 새로운 직업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 배움과 변신에 '늦었다'라는 말은 없다." 금융 위기 과정과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깨달았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한평생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과장된 낭만주의적 관용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말은 갑자기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디지털 경제는 이를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는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타깃, 후원자, 시장 등을 물색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대적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고 의견을 나누기도 쉬워졌다.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Seth Godin)이 말한 것처럼 개인은 자신만의 '부족 리더'가 될 수 있다. 오늘날 18~25세 연령대의 청년들을 '창조적 세대(creative generation)'라 부른다. 그들은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대다. 세대가 변화하는 만큼 사업 아이디어도 변하고 있다. 〈와이어드Wired〉의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 기자는 인터넷에서 '공짜 나눠주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배포해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업 아이디어라고 정의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수많은 사업 아이디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지금 내 직장이 얼마나 크고 건실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직장의 미래와 우리의 일자리는 모두 불확실하다. 둘째,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할 만큼 시장의 장벽이 낮아졌다. 그렇다면 미래로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변신시키고 믿어야 한다. 현재 지식 사회에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자신의 두뇌다.

미코노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한 십계명

내가 쓴 책 〈미코노미〉에서 지적한 10가지 특성은 미래 우리의 생활과 일을 지배할 표준이 될 것이다.

1 평생 고용, 연금 보장, 나인 투 파이브형(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봉급생활자), 전통적 교육 방식 등 기존에 믿어왔던 일반적 방식은 급속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당연시했던 제도는 이제 40대 이하 세대에게는 흘러간 유물에 불과하다.

2 요즘 젊은이들은 국가에 무조건 의존하지 않는다. 글로벌화 시대를 사는 그들은 안정 고용이라는 약속도 무턱대고 믿지 않는다. 정해진 법칙을 따르기보다 주도적인 사업가 정신을 더 따른다.

3 일은 점점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변할 것이다. 사무실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달 덕분에 업무 과정이 변화했고, 그 결과 남는 여가 시간에 다른 환경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 지식, 기술, 사업 아이디어가 재빠르게 구식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 '평생 교육'이라는 표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4 각자의 정체성이 인생의 목표 설정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 낙오될지도 모른다.

5 이 모든 변화는 또 다른 기회다.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고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급속도로 무료화, 글로벌화, 개별화, 조직화되었다.

6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인터넷 통신망 덕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만 있으면 소비자를 찾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사업 아이디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만큼 경쟁도 심해졌다. 더 많은 수단을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과거에 배운 절차를 다음 작업에 반복 적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브랜드로 내세워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해 세상과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각자의 감정과 열정을 부각시켜야만 한다.

8 행복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독자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일과 일상으로부터 탄탄하게 다져진 환경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9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노동 환경은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진다. 생활과 일은 직장 상사나 사는 곳에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며 일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10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일에 더욱 보람을 느낀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것과 일은 별개라고 생각했지만 젊은 세대는 돈을 벌더라도 착한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한다.

언뜻 미코노미 시대는 이기적인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사회적 공감대와 앙가주망(enganement, 사회문제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장려한다. 미코노미는 종말론적 시나리오, 침울한 분위기, 수동적 태도에 기죽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자'고 호소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받지 않고 스스로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초대다. 나만의 커리어를 스스로 개척하고 싶은 개인, 보다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 사업가들에게 향한 호소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불평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위기로부터 무엇인가 배우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 글은 필자의 동의를 얻어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http://designmind.frogdesign.com/articles/work-life/the-freelance-life.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알베르스(Markus Albers)

독일 베를린에서 살며 프리랜서 기자 겸 논픽션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 〈GQ〉 〈AD〉 〈배너티 페어Vanity Fair〉 〈슈피겔Der Spiegel〉 〈슈테른Stern〉 등에 기고했으며, 현재는 〈모노클Monocle〉 베를린 통신원, 아이패드 매거진 편집인이자 그가 설립한 회사 리싱크Rethink의 미디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마트워킹–스마트 e시대 자유 정규직이 뜬다〉와 〈미코노미Meconomy〉가 있다.
www.markusalbers.com